

특집 II

#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경제

이 원고는 아시아의 경제회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유수 싱크탱크인 삼릉총합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 경제, 위기로 부터 회복선언'이라는 보고서 전문으로 "KOTRA 해외시장"에 게재된 내용을 전재한 것임.

## 1. 총론

### 가. V자형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경제

지난 '99년말부터 시작된 아시아 경제의 회복을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99년도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10.7%를 필두로 중국 7.1%,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가 5%대, 다소 회복세가 더딘 홍콩, 태국도 3%대의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인도네시아가 0%대의 성장률을 보여 가장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4분기의 경우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가 각각 12.8%, 14.3%, 11.7%를 기록해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어 싱가포르, 중국, 대만은 9.1%, 8.3%, 7.9%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장률만 보면 '98년을 바닥으로 V자형 급상승세가 현저하다. 다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현재도 저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대조적이기는 하다.

경기 후퇴기에는 수입의 감소가 뚜렷했지만 현재의 경기 상승은 수출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내수와 투자도 성장을 견인하는 다른 기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성장을 하고 있는 각국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출입의 확대, 통화 안정 및 완만한 물가상승, 생산활동 호조 및 실업률 저하 등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경제성장을 리드하는 요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성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2개 국가도 수출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나. 경제규모의 회복상황

경제규모의 회복상황에 대한 척도로 경제성장률, 경제규모(GDP), 소득수준(1인당 GDP) 등으로 평가할 경우 각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경제규모(혹은 시장규모)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느냐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관점은 물론 1인당 GDP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GDP 규모와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경제위기로 낙마의 폭이 컸던 한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실질적인 GDP 규모 추이를 보면 V자형 상승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국은 '99년의 GDP 규모가 '97년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한국에 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는 2000년에, 태국은 2001년에 완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97년도 GDP 규모를 100으로 할 경우 2001년도에 한국은 119.4, 말레이시아는 112.9, 홍콩은 110.4, 태국 104.7, 인도네시아 95.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98년에도 플러스 성장을 했던 대만, 싱가포르, 중국 등은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상품소비 측면에서 보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선행지표의 하나인 자동차 판매대수 추이를 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과거 피크 수준에 미달되고 있어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태국의 가전제품 소비수준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아시아 경제회복의 과정과 장래 시나리오

우선 '99년 이후 각국의 경기회복 과정을 살펴 보면 국별로 타이밍과 순서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화의 안정 → 금리 및 물가의 저하 → 수출의 확대 → 생산의 확대 → 기업실적의 호전 → 소득의 확대 → 소비의 확대 → (투자의 확대) → (실업률의 저하)

이러한 회복과정의 배경에는 구미경제의 호조, 각국 정부의 적절한 경제정책, 일본의 경제지원,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 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자의 후퇴 혹은 실업률 상승 등이 회복 궤도에 진입한 각국이 경계해야 할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논의의 중심은 이러한 경기 확대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회복을 지탱한 변동요인을 정리해 보면서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1) '99년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동향

가) 내수동향

○ 플러스 요인

- 경기회복에서 대폭적인 변동
- 금리저하
- 추가회복에 의한 자산효과
- 물가저하(디플레이 문제)

○ 마이너스 요인

- 실업률의 증가

- 정권교체, 정치 불안정
- 나) 외수동향
  - 플러스 요인
    - 구미경제의 호조(미 : 4.2%, 구주 : 2.4%)
    - 아시아 역내경제의 회복
    - 하이테크 관련수요의 확대
    - 현지 통화의 안정적 평가절하
  - 마이너스 요인
    -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
  - 다) 기타 동향
    - 플러스 요인
      -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 추진
      - 일본 등으로부터의 경제 지원
    - 마이너스 요인
      - 부실채권 정리의 지연
      - 금융기관의 융자지원 정책
      - 과잉 생산설비
    - 라) 경제동향의 특징
  - 내수부문
    - 소비의 회복
    - 투자회복의 지연
  - 외수부문
    - 수출의 급속한 확대
    - 무역수지 흑자폭의 확대
- 2)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의 시나리오
  - 가) 내수동향
    - 플러스 요인
      - 소비의욕의 확대
      - 실업률 저하 기조의 정착
      - 물가상승(디플레 해소)
        - ※ 마이너스 요인 상존
    - 마이너스 요인
      - 금리상승 압박
      -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반동
      - 주가 선행지수의 불투명감
    - 나) 외수동향
      - 플러스 요인
        - 아시아 역내경제의 확대 지속
        - 일본의 경기회복
        - 중국의 WTO 가입 및 이에 따른 파급효과
        - 엔고 행진
          - ※ 마이너스 요인 상존
      - 마이너스 요인
        - 구미경제의 성장 감퇴
          - ※ 2000년, 미 : 4.9%, 구주 : 3.3%
          - 2001년, 미 : 1.9%, 구주 : 2.0%
        - 현지통화의 상승 압력
      - 다) 기타 동향
        - 플러스 요인
          -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력 확충
          - 구조조정 종결에 따른 완만한 고용창출
        - 마이너스 요인
          - 불량채권 정리가 여전히 문제로 대두
        - 라) 경제동향의 특징
        - 내수부문
          - 소비의 확대, 후기는 둔화
          - 투자회복 본격화
        - 외수부문
          - 수출의 호조, 후기는 둔화
          - 수입확대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폭의 감소

이상에서 정리한 오는 2001년까지의 아시아의 경제동향에 기초해 주목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각 국가(지역)별로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장래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선진경제의 동향

2000년은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과 구주의 경제가 순조롭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릉총연이 6월에 예측한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4.9%, 구주는 3.3%이다.

그러나, 2001년도는 1.9%, 2.0%로 둔화될 것으로 보여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01년도에 일본의 경제가 올해 1.3%에서 내년 1.7%로 확대되며 또한 아시아 역내경제의 확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대달러 환율

수출의 확대로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나타나게 된다. 2001년도 달러에 대한 엔화의 가치를 100엔으로 상정하면 여타 아시아 각국 통화의 평가절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수출의 신장률이 약간 다운될 것이 우려되나 수입원자재 혹은 중간재 가격의 하락이라는 호조도 있다.

변동폭은 과소평가된 통화가치의 조정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경쟁조건 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주식시장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미국 주식시장과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 지난 4월에 나스닥 시장의 급락에 따라 아시아의 주가가 하락한 기억이 새롭다. 그 후는 주가가 대체로 상승기조에 있어

소비면에서도 호재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스닥 지수가 작년에 비하면 과대평가되고 있는 점이 적지 않다. 또한 미국경제가 오는 2001년에 감속되면 주가도 조정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시아의 주가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 역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확대의 둔화가 예상된다.

## 금리 및 물가

미국의 금리인상은 아시아 각국에도 금리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경기확대에 의한 인플레이 우려가 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금리 혹은 물가의 상승이 있더라도 현재의 수준이 매우 낮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는데 그칠 것으로 보여 소비 혹은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여하튼 내수는 과거로부터의 반동 요인에 의해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 불량채권 문제

아시아 각국의 금융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불량채권 문제는 여전히 골치거리나 최악에서는 탈피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불량채권 비율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40%, 50~60% 수준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어 일본과 같이 불량채권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상기에서 지적한 포인트에 더해 인도네시아, 필

리핀 등은 정정불안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00년의 성장속도에 비해 2001년도에는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이 대폭 감속하는 정도로 심각한 영향은 아닐 것이다.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는 플러스 요인, 예를 들어 일본의 경기확대, 아시아 역내경제의 활성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기업의 투자 부활, 장기화된 실업률의 저하 및 고용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향후 아시아 경제는 순조롭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무방할 것이다.

라. 2000/ 2001년 아시아 경제 전망

1) 2000년 아시아 경제 예측

- '아시아 경제의 회복선언의 해'

2000년도 아시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강한 확대가 기대된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등은 7% 이상의 성장률 실현이 가능케 된다. 한편 태국은 5% 후반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3~4%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현시점에서 고수준의 실업률, 불량채권 해소문제의 지연, 인플레이 압력 등을 현안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일본 경기의 확대, 소비의욕의 증대 등이 현안문제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시아 역내의 호경기도 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 아시아 각국 내지 지역의 경제규모는 예외는 있지만 2000년중에 '97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000년은 아시아 경제 회복선언의 해로 평가할 수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실질 GDP 실적 및 전망(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국 명	실 적					전 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 NIES	7.3	6.2	5.5	-2.8	7.8	7.9	6.2
한 국	8.9	6.8	5.0	-6.7	10.7	8.9	6.4
대 만	6.4	6.1	6.7	4.6	5.7	6.9	6.4
홍 콩	3.9	4.5	5.0	-5.1	3.0	7.4	5.2
○ ASEAN	8.2	6.9	3.9	-8.1	3.2	5.7	5.3
싱가포르	8.1	7.4	8.4	0.4	5.4	7.2	6.1
태 국	8.9	5.3	-1.6	-9.5	4.2	5.6	5.1
말레이시아	9.4	8.6	7.3	-7.4	5.6	8.5	6.3
인도네시아	8.2	7.8	4.9	-13.2	0.3	4.2	4.9
필리핀	4.8	5.8	5.2	-0.6	3.3	3.9	4.5
중 국	10.5	9.6	8.8	7.8	7.1	7.6	7.3
합 계	8.7	7.6	6.3	-0.2	6.5	7.3	6.5

[자료 : 삼릉총연]



2) 2001년 아시아 경제 예측  
- '내수 주체의 견지에 의한 성장 시프트'

2001년 아시아 경제성장은 2000년과 비교할 경우 천천히 다운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가 5~6%대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저수준인 4%대 후반의 성장을 달성해 전년도 성장률을 약간 상회할 것이며, 중국은 여전히 7%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안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외부환경으로는 구미경제의 성장률 둔화를 필두로 아시아 각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 국내적으로는 금리인상 압력, 주가 선행지수의 불투명감, 인플레이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확대, 실업률의 저하, 역내무역의 활성화, 투자확대 등의 플러스 요인이 경기를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은 '99년, 2000년 2년 연속 계속된 고 성장에 대한 반등으로 조정국면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성장 혹은 회복의 본 궤도에서 벗어난 급격한 둔화가 아닌 내수의 건실한 확대를 폐이스로 한 보다 자율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2. 각국별 경제현상 및 추이

### 가. 한국

'99년 10.7% 성장세가 2000년에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2000년 1/4분기는 전년대비 12.8%의 성장을 보여 4분기 연속 두자릿수 성장세를 시현했다.

작년 1/4분기 성장률이 5.4%로 저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등으로 보여지며 올 4월의 총선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나 1/4분기에 이 정도의 고성장이 가능했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9년도의 경우 경기를 견인한 것은 민간소비와 수출의 확대이나, 최근 들어서는 민간소비는 신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도 증가되고 있고 2000년도 1/4분기의 총고정자본의 형성이 전년대비 22.4%나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퍼스컴과 통신기기 등 정보통신 분야의 설비투자가 왕성하다.

수출은 '99년 5월 전년대비 플러스로 반전된 이래 두자릿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달러 환율도 안정적 기조를 보이고 있어 수출경쟁력이 유지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경제회복 덕을 보고 있다.

한편, 내수의 호조를 배경으로 수입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수출을 상회하는 전년대비 40~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소재 및 부품의 수입확대가 현저하다. '99년 12월에는 2년만에 경상수지의 적자가 나타났으며, 올해 3월에는 현안인 실업률이 경제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4.1%로 낮아지고 있다.

2000년도 한국 경제는 9%대의 성장률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후반기에는 성장률의 감속이 예상되나 내수 및 외수가 공히 호조를 보이고 있어 비관요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남북정상 회담의 실현은 현 정권의 신뢰를 높이고 있으나, 현안사항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현대그룹을 위시한 불량채권의 처리 지연 등으로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기업이 있다. 인플레이 압력으로 인한 금리상승 압박도 유의해야 할 부분의

하나이다. 2001년에도 한국경제의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나 2000년도 고성장에 대한 반동 혹은 구미 경제의 둔화 등의 요인에 의해 6%대로 성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나. 대 만

작년 가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성장률의 대폭 감소가 예상됐지만 의외로 경제활동의 정체는 소폭에 그쳐 성장률이 7.5%나 됐다.

'99년 4/4분기 중 총고정자본 형성이 8.1%나 증가했고, 수출도 16.6% 확대돼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올 1/4분기도 호조추세가 지속돼 민간소비, 총고정자본 형성, 수출 모두 성장률 유지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수출의 경우 올해 4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34.2% (통관 기준) 증가해 세계적 반도체산업의 호황을 타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수입도 48.5%나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감소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0년 들어서 다소 상승하고 있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4월 기준 1.3%로 인플레이 걱정은 거의 없다. 올 1/4분기의 예금 및 대출금리는 각각 4.62%, 7.73%로 과거 12년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금융지표 전반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신정권의 경제운영 수완이다. 5월 20일 천수이벤(陳水扁) 총통의 취임연설은 중국-대만의 교류확대에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대중 교류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도 없었다. 천수이벤 총통은 전 정권의 정책 노선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도 대만 경제는 퍼스컴을 비롯 반도체의 수요확대와 동남아의 경기회복에 편승해 수출확대와 내수호조를 배경으로 7% 내외의 성장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적자의 확대와 금융기관 혹은 기존 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이 염려되나,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도는 2000년도 경기의 과열기미에 대한 조정으로 6%대의 성장이 예측된다. 천수이벤 정권의 정책기조도 정경분리를 표방하고 있어 경제에 대한 우려도 적은 편이다.

### 다. 홍콩

회복의 스타트가 다소 늦었지만 '99년에는 9.2%, 2000년 1/4분기에는 14.3%의 성장률을 기록해 과거 13년만에 최고의 기록을 보였다. 물론 수출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특히 하이테크 부문이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임금동결, 고실업률,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반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

'99년 7월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반전된 수출은 2000년 3월에는 25.3%의 신장률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의 수요회복, 구미의 소비호조, 중국 본토의 무역 회복이 기여한 바가 크다.

'99년 9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식품, 내구 소비재, 기타 서비스 부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의 우려는 거의 없다.

주가는 등락의 폭이 커 전반적으로 불안하며 특히 하이테크 관련, 주의의 불안정감이 높다. 부동산 시장도 신규 물건에 대한 매매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5월에는 주요 은행이 우대금리를 인상시켜 소비, 투자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실업률은 주요 현안으로 '99년 10월에 피크인 6.5%에 달했으나 그 후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줄어드는 스피드는 아직 늦지만 대학생 취업률이 늘어나는 등 서풍이 비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2000년도 홍콩 경제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앞서며 특히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는 진단도 있다. 실업률 저하 속도 지연, 금리인상, 역자산 효과에 의한 소비의 둔화 등이 악재이다.

2/4분기 이후 2%대의 성장률만 유지하면 연중 7%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만한 것은 수출호조와 더불어 내수의 확대이며 이를 통한 자율적 성장기반이 구축되느냐 하는 것이다. 2001년도 경기확대 스페이스가 둔화돼 5% 정도의 성장이 전망된다.

#### 라. 싱가포르

'99년도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은 5.4%에 달해 '98년도의 0.4%에 비해 대폭 상승했다. 작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7% 내외의 신장률을 과시하면서 2000년 1/4분기는 9%를 초과했다.

산업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비 13.8%나 증가해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자부문 생산은 23.9%, 공장설비 투자가 많은 화학부문은 26.6%나 생산이 증가했다.

내수의 경우도 민간소비가 6.2%나 증가해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고용조정이 거의 완료됐고, 주가가 상승한 것도 소비를 부추긴 것으로 보여진

다. 반면 총고정자본 형성은 3.6% 감소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으나 '99년 하반기부터 3% 정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은 '99년 가을부터 플러스 추세로 반전돼 2000년에 들어서도 20%를 능가하는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대전화, 퍼스컴 등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 아시아 역내경제의 회복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산확대에 편승해 생산재 혹은 중간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 확대에 따른 소비재 수입도 증가하고 있어 전체 수입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경기확대가 현저하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완만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0년 4월 시점 상승률은 1.1%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승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싱가포르의 금리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나 물가수준이 낮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체 평가이다. 다만 싱가포르 달러는 미 달러에 비해 약간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싱가포르 경제는 예상 이상의 호조를 보여 7%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국과 비교하면 싱가포르의 경제 파운드 멘탈은 건재하다. 따라서 역내 경제가 활성화되면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수는 물론 내수도 성장을 착실히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은 미국 경제의 감속, 금리상승, 국내 증권시장의 불투명, 건설 섹터의 부진, 3%를 초과하는 실업률 등의 악재가 있으나 6%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일본과의 자우무역협정 구상도 무역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마. 태 국

'99년 하반기부터 태국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이 발생, '99년도는 4.2%의 성장률을 보였다.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민간소비와 수출에 더해 총고정자본의 형성도 전년 대비 12.1%나 증가해 견실한 성장계도에 진입하고 있다. 2000년 5월에는 경제의 순조로운 회복에 힘입어 IMF 관리체제를 사실상 졸업했다.

'99년 하반기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는 수출은 2000년 1~3월 중에도 36.5%, 29.7%, 10.8%로 다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력 수출품목인 농작물을 비롯해 자동차 등 기계제품의 수출이 호조다.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도 확대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의 흑자는 유지되고 있다. 환율은 미 달러당 38 바트대의 안정적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표로 눈을 돌려보면 소비 호조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승 기조에 있으며 '99년 12월 이후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의 금리상승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나 당분간 저금리 체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위기 당시 8억달러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도 2000년 4월 기준 300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순조러워 보이는 태국 경제에도 악재는 있다. 금융문제의 미해결이 가장 눈에 띈다. 금융기관들이 거액의 불량채권을 안고 있어 신규 대출을 꺼리고 있다. 생산 면에서도 올 들어 광공업 생산지수의 신장이 일단 멈추었으며, 실업률도 '99년 12월 3.3%에서 올 3월에는 4.7%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태국 경제는 악재도 도처에 있으나 기본적

으로 안정적 회복을 실현하고 있어 5%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4%대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나, 소비의 안정적 확대와 민간투자의 증가로 정부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여진다. 2001년도 금융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면 5%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 말레이시아

'99년 4/4분기 이후 말레이시아 경제도 급속히 회복되고 있다. '99년 4/4분기 중에는 전년 대비 10.8%의 성장률을 보여 연간으로는 5.6%의 성장을 달성했다. 2000년도에 들어서도 호조 추세가 계속돼 1/4분기 중에는 11.7%의 성장률을 보여 예상 이외의 고성장을 기록했다.

1/4분기의 고성장을 두고 중앙은행 총재는 "말레이시아 경제는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등 호경기에 대한 분위기가 완연하다. GDP 항목별로 보더라도 민간소비가 14.4% 증가, 위기 이후 최대의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총고정자본 형성도 12.3%나 증가해 외수 주도의 성장에서 내수 주도로 전환되고 있다.

수출도 호조를 보여 '99년 하반기 이후 두자릿수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물론 전자제품이다. 환율도 미 달러당 3.8링기트로 고정돼 있어 수출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경기의 확대로 수입도 증가되고 있는데 무역수지의 흑자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2000년 3월 말 기준 외환준비고도 6.1개월치의 수입에 상당하는 1,289억링기트에 달하고 있다.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경제회복 추세가 눈에 띈

다. 내수, 외수의 호황에 따라 광공업 생산지수의 두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3% 내외로 안정되고 있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1%대에 머물고 있고, 인플레이의 우려도 거의 없다.

2000년 말레이시아 경제는 내수와 외수 모두 불안 재료가 없어 8%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연초에 예상한 5.8%를 훨씬 웃돌고 있어 수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 총재도 고정환율제 채택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 당분간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1년에도 기본적으로 호조 추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구미경제의 감속, 2000년도 회복에 대한 역작용으로 성장률은 6%대로 다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 인도네시아

'99년도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은 0.3%에 그쳤다. 여타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회복궤도에 진입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나, '99년 2/4분기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역전되고 있으며, 4/4분기 성장률은 5.0%에 달했다. 2000년 1/4분기는 3.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확대 기미를 보이던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1.8%에 그쳐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고정자본 형성은 11.7%로 확대되고 있어 경제위기 이후 최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99년 1/4분기 실적이 워낙 저조한 탓도 있지만, 향후 경제에 대한 밝은 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수의 경우 아직 불투명하나 수출은 급속히 확

대되고 있다. 통관 베이스로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타고 있다. 2000년 2월에는 49.1%, 3월에는 25.0%의 증가를 보여 월단 위로는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루피아화의 저평가가 계속되고 있으나, 고유가로 석유 및 가스의 수출이 급신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 전화기 등 공업제품도 수출이 신장하고 있다.

수출증가의 이면에는 생산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99년 하반기의 광공업 생산지수가 30% 내외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전년에 80%의 증가율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0% 내외의 안정적인 기미를 보이고 있다. 다만 5월 들어 정치, 사회불안 등의 요인으로 미 달러당 루피아화의 가치가 8천에 달해 이에 대한 주의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2000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수출의 확대에 더해 하반기부터 내수도 확대할 것으로 보이나 인근 국가와 유사한 V자형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3.4% 성장률 달성이 정부 목표이다.

2001년에는 내수 호조가 수반되면 5% 내외의 성장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 4월 들어 와히드 대통령의 경제 각료 2인 경질 등 경제정책에 대한 불투명감이 당면한 문제로 지적된다. 5월에는 대폭동이 자카르타에서 발생하는 등 정정 불안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경기회복이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아. 필리핀

'99년 2/4분기 이후 3.6%, 3.8%, 4.9%의 성장률을 높여 왔으나 2000년 1/4분기에는 3.4%로 정부 목표인 3.8%에 미치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농업부문이 엘리뇨 현상

과 농업 중심지인 민다나오섬의 분쟁으로 인해 0.2% 성장에 그친 것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기는 역할을 했다.

재정적자 소멸을 이유로 정부지출을 줄인 것도 성장률 감속의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민간소비, 총고정자본의 형성 등은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다.

수출도 안정적 확대 경향을 보여 2000년 3월에도 증가율이 10.6%에 달했다. 주력 수출제품은 전기 및 관련 부품이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이다.

통화 폐소가 '99년 하반기 이후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도 다른 아시아 경쟁국보다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내수도 확대되고 있어 '99년 하반기 이후 수입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99년 전체적으로도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1월에는 2.6%의 수준을 보였다. 그 후 일관되게 상승세를 보여 5월에는 4.1%에 달했다. 서비스, 식품, 음료, 담배 등의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의 주범이 됐다. 광공업 생산지수는 '99년 하반기 이후 두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필리핀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4%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필리핀 정부도 당초 목표 5%에서 6월에는 4%로 낮춰 잡고 있다. 농업부문의 생산 감소,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의 어려움, 민다나오섬의 치안정세 불안 등의 요인이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에도 4%대의 성장이 기대된다. 다만 농업부문의 회복, 왕성한 외수 유지, 폐소화 안정이

필수조건이다. 또한 에스트라다 정권에 대한 불신감 팽배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며 정치혼란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 자. 중 국

'9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1%에 달했다. '99년 1/4분기에 8.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그 후 내수의 냉각과 수출의 둔화로 약간 떨어졌다. 2000년 1/4분기에는 8.1%의 성장률을 보여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적극 재정의 효과, 사회보장 시스템의 확립, 통화정책과 환율의 안정, 하이테크와 교육에 대한 투자강화, 국영기업의 개혁 진전 등을 성장률 회복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개인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5월 들어서는 중국판 골든 위크로 국내여행 혹은 백화점의 매상고가 최고치를 보였다.

수출은 '99년 하반기부터 확대일로에 있으며 올해 4월에는 38.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출의 호조로 인민폐도 미 달러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 확대가 예상된다.

중국의 WTO 가맹과 관련해서는 2000년5월 EU와 2국간 교섭이 타결되는데 이어 미국 하원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항구화 법안을 체결했다. 그 결과 중국의 WTO 가맹 실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현안의 하나는 그 디플레이 기초의 장기화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00년 2월에 22개월만에 플러스로 반전됐으나 3월에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 디플레이 기초가 종료되는데 좀더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국영기업의 개혁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도 현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2000년도 신규 일시 귀가자는 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악재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중국경제이기는 하지만 2000년은 아시아 경제의 회복, 소비의 확대, WTO 가입 효과, 수출과 내수의 호전 등에 의해

'99년보다 높은 7.6%의 성장이 전망된다. 2001년도는 중국의 제10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연도이기 때문에 투자를 부추기는 호재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경제의 감속, 아시아 역내경제의 성장을 둔화 등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7.3%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유가급등! 에너지는 달려입니다.**

